

불교는 '숲의 종교' ... 사람과 닮아가는 사찰숲 기록해



(109) 연재를 마치며



치악산 구룡사 토양조사.



청량산 식생 모니터링.



월정사 물고기 탐사.



식생지도 그리기.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대표.

필자가 우리 숲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꽤 오래된 일이다. 자연생태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던 1994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생태탐방 교육단체인 두레생태기행을 만들었다. 매달 2-3차례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전국의 산과 강과 바다를 찾아가는 활동을 펼쳤다.

그즈음 사찰 환경이 곳곳에서 훼손되면서 사찰숲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사찰숲은 우리 산림환경의 지표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발정책과 내부의 대형불사 등으로 많이 훼손되고 있었다. 우리는 생채기 없는 산하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도덕적 사명이 있다.

사찰숲은 1929년 일본인들이 자원취취를 목적으로 전국 사찰림을 한 차례 조사한 일 외에는 해방 후 여태까지 한번도 조사된 적이 없다.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사찰숲의 모습을 후손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싶었다. 그래야만 사찰숲의 변화와 파괴의 정도를 비교하고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사찰생태연구소'라는 모임을 만들어 사찰숲을 찾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일에 나섰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사가 동참해 '108사찰 생태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하게 됐다. 2002년 4월 인성 칠장사를 시작으로 2008년 11월 강원도 양양 낙산사를 끝으로 7년이 걸렸다.

우리가 7년 동안 찾아다니던 108개 사찰은 종파에 관계없이 전국의 주요 전통사찰을 비롯해 5대 적멸보궁, 3대 관음도량, 탐방객과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사찰, 생태 가치가 뛰어난 사찰이 망라돼 있다. 대표적인 서울 도심 사찰 봉은사도 빼놓지 않았다.

생태 모니터링(Eco monitoring)이란 숲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숲을 찾아가 자연을 읽고 동식물들을 살펴보는 일이다. 현장에서 조사 기록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메모를 정리하고 다듬는 일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과정이다. 그동안 교수와 박사 등 전문가를 비롯해 숲 해설가

등 여럿이 동참했다. 특히 오대산 월정사, 치악산 구룡사 등 몇 개의 사찰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동원된 정통 생태조사였다. 그러나 절반 넘게는 혼자 조사를 다녔다.

현지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자료와 사진을 정리하는 일이 또 남아 있다. 이름을 모르는 동식물에 대해서는 관련 도감을 통해 동정했고, 그래도 긴가민가한 것은 여러 동료에 보내서 동정을 구했고, 동행한 이들이 보내준 자료를 참고해 보고서를 정리했다.

여기서 사찰숲이란 물론 식생(植生)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곤충류에서부터 조류와 파충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동물상과 토양에 대한 것도 '사찰숲'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 지질과 지형을 비롯하여 풀과 나무들, 조류, 곤충, 어류, 파충류, 양서류, 포유류를 비롯해 생활환경까지 조사했다.

생태모니터링하는 데 소요된 재원은 자가충당이였다. 가능한 사찰의 편의를 받지 않은 것은 공문을 주고받는 번거로움도 싫었지만, 협조를 받으면 그 사찰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기록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다만, 문경 봉암사를 비롯해 몇 곳의 비구니사찰은 특성상 부득이 사전 협조를 구했다.

필자는 차가 없다. 15년 생태운동을 하다 보니 행여 차를 갖게 될까 봐 운전은 배우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108 사찰 대부분을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다녔다. 사찰 한 곳을 찾아가기 위해 경기도 광주 집을 나서 서울을 떠나기 위해 10차 레나 교통편을 바꿔 탄 적도 있었다.

지난 7년 동안 북으로는 강원도 고성 금강산의 건봉사부터 남으로는 해남 땅골의 미황사와 바다 건너 한라산 관음사까지, 해발 1244m 설악산 봉정암부터 해발 0m의 바다 위에 뜬 서산 간월암까지, 산중의 절부터 서울 도심의 봉은사에 이르기까지, 한 철도 거리지 않고 찾아다녔다.

그동안 사찰숲에서 만난 친구들은 이름만으로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다. 바위에 붙어사는 지의류에서 이름 모를 이끼까지, 남방 난대식물부터 북방 아한대 식물까지, 물속에 사는 물벌레에서 창공을 나는 잡자리까지, 심산유곡에 사는 열목어부터 농수모에서 헤엄치는 송사리까지, 뒷새에서 여름철새와 겨울철새에 이르기까지, 땅속 두더지부터 수달과 참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이름을 떠올리기 어려운 정도로 많고 다양했다. 생명체뿐 아니라 산을 지키 온 바위에서 숲 속의 토양까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발에 밟히는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야 할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었다.

사찰숲을 찾아다니며 새삼 느낀 것은 불교와 숲의 깊은 인연이었다. 붓다는 숲 속에서 태어나 출가하고 깨달음을 얻은 숲속의 선각자였기에 불교가 '숲의 종교'일 수밖에 없었다.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나서도 전통이 그대로 이어졌다. 우리의 절 집은 산막(山窟)이요, 스님들은 숲지기였다. 역사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주고, 사찰숲이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7년 동안 사찰숲을 다니면서 얻은 결론은, 절로 이루어진 숲이란 사람이 심어 가꾼 숲이든, 숲은 거기에 사는 사람을 닮는다는 사실이었다. 도시의 숲은 시민들을 닮고, 사찰숲은 그 절에 사는 스님들을 닮아 있다. 나무는 심기만 한다고 다 잘 자라는 것이 아니다. 천연덕스럽게 자란 사찰숲을 찾을 때마다 옛 스님들의 무위자연의 손길이 새삼 놀라웠다.

비교적 자연과의 조화가 좋았던 사찰로는 영월 범홍사, 오대산 월정사, 김천 수도사, 문경 봉암사, 해남 미황사, 봉화 청량사, 문경 김룡사, 울진 불영사 등이 기억에 남아있다.

그러나 감동이 큰 만큼 아쉬움도 뒤따랐다. 정부나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개발과 사찰 스스로의 대형불사 등으로 말미암은 사찰숲 훼손은 안쓰러울 정도였고, 이런 현실은 한없는 회의와 비애로 다가왔다.

생태모니터링 보고서에 기록된 종은 2000여 종이 넘고, 해설한 동식물만도 1000여 종이나 된다. 그 가운데 기억에 남을 식물로는 김천 수도사의 개불알꽃, 정선 정암사의 산작약, 양양 낙산사의 해국, 여주 신록사의 가시박, 문경 봉암사의 꼬리진달래, 울진 불영사의 금강송, 덕유산 백련사의 구상나무 등이다. 동물로는 영동 반야사 계곡의 재첩, 오대산 월정사의 금강모치, 영월 범홍사의 까막딱따구리, 양양 낙산사의 바다가마우지와 바다직박구리, 설악산 봉정암의 산양 등이다.

108사찰 생태모니터 보고서의 분량은 대개 사찰당 200자 원고지로 60-80매 정도이다. 개인적인 감상이나 문화적인 수사에 치우치면 기록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기 쉽기 때문에 건조하고 딱딱한 문체를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생태에 대한 초심자들도 쉽게 관찰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주요 동식물에 대한 짧은 해설을 곁들였으며, 모니터 구간도 초심자들이 쉽게 탐방관찰할 수 있도록 사찰 입구에 서부터 동선에 따라 조사구간을 정했다.

보고서 내용의 30% 정도를 발췌해 7년 동안 현대 불교신문에 '108사찰 생태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연재하고, 90%를 다듬어서 이번에 <산사의 숲을 거닐다>(10권 시리즈)를 펴내게 됐다.

<산사의 숲을 거닐다>는 단순한 여행책이나 산행 인도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다. 우리의 자연을 생각하고 산사의 숲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썼다. 산사의 숲 속의 생태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산사의 숲 속에도 또 다른 숲으로 존재하는 문화유산을 생태적 시각으로 기록하려고 했다. 그러기에 절과 숲에 처음 눈을 뜨는 사람에게는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작은 희망사항으로 그칠지도 모르지만, 이 책이 1세기 뒤 혹은 더 먼 훗날 이 땅에 살 사람들에게 오늘의 산사의 숲을 알려 주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108사찰 생태조사 모니터링에 참가한 분들

-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 대표)
- 임주훈(두레생태기행, 임학박사)
- 배상원(사찰생태연구소, 임학박사)
- 류재한(사찰생태연구소, 식물분류학 박사)
- 김병연(두레생태기행, 식물분류학 박사 수료)
- 박희준(사찰생태연구소, 식물분류학 박사 수료)
- 박해철(두레생태기행, 곤충학 박사)
- 손재현(농업과학기술원, 곤충학 박사)
- 정부희(성신여대, 곤충학 박사 과정)
- 김태환(성신여대, 곤충학 박사 과정)
- 강정환(고려대, 곤충학 박사)
- 이기섭(사찰생태연구소, 조류생태학 박사)
- 이학영(두레생태기행, 자연어종연구회 회장)
- 강영호(사찰생태연구소, 토양학)
- 김영일(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
- 장용준(두레생태기행, 고려대 곤충학 박사 과정)
- 문영자(숲해설가)
- 원진희(숲해설가)
- 강영란(숲해설가)
- 박현숙(숲해설가)
- 김지현(숲해설가)
- 박종숙(숲해설가)
- 이미옥(숲해설가)
- 정미경(숲해설가)
- 원우 스님(부석사, 천수만 철재센터)
- 이호신(두레생태기행, 한국화가)
- 조재희(사찰생태연구소 사무국장)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연식	1964년생	170	고졸	공무원	서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졸	건설사	경기도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오영일	1951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임용우	1966년생	174	고졸	자영업	충주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업	전주시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경	충북	강태욱	1975년생	169	고졸	자영업	서울
노해웅	1972년생	173	고졸	C회	대전	문순중	1970년생	163	고졸	공무원	대전	양명진	1955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김용진	1968년생	160	대졸	자영업	천도
이준우	1964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전	이영철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충남	이정숙	1963년생	163	고졸	자영업	경기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졸	사회복지사	대전	민희성	1969년생	172	고졸	건설사	부산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충청	심명길	1971년생	170	대졸	자영업	서울
조복재	1965년생	180	고졸	일반직	대전	최정우	1978년생	178	대졸	건설사	대전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충청	이연재	1974년생	169	대졸	자영업	경기도
임태빈	1981년생	180	대졸	공무원	서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졸	회사원	전해	박진봉	1969년생	170	대학교	학원강사	충청	배덕열	1976년생	168	대졸	회사원	경기도
김기업	1969년생	180	전문대	자영업	서울	정연중	1959년생	165	고졸	공무원	충남	배중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충청	배복열	1967년생	165	고졸	자영업	경기도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	회사원	경기도	오세준	1975년생	175	고졸	공무원	경기도	김성기	197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청	최병덕	1968년생	170	고졸	자영업	경기도
최영길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	박현숙	1964년생	163	고졸	회사원	경기	이중호	1976년생	163	고졸	회사원	충청	장보배	1973년생	176	고졸	자영업	아산시
오상택	1965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	연길홍	1973년생	175	대학원	공무원	경기	오진철	1974년생	170	대졸	한약사	충청	유두석	1971년생	167	고졸	회사원	서울
한용석	1975년생	167	고졸	회사원	전주	박성준	1965년생	169	고졸	건설사	대전	최원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충청	유정환	1974년생	162	고졸	회사원	대전
최정복	1971년생	174	고졸	회사원	충북	박준규	1971년생	170	대졸	건설사	대전	최원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충청	김광범	1970년생	183	전문대	공무원	서울
이정배	1966년생	172	고졸	회사원	충북	최준우	1962년생	164	고졸	제조업	대전	최원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충청	조경성	1945년생	171	대졸자	공무원	경기도
임영준	1973년생	176	전문대	회사원	대전	조현욱	1972년생	166	고졸	제조업	대전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사	충청	한규	1963년생	174	고졸	자영업	서울
이영근	1976년생	165	대졸	회사원	대전	김진목	1969년생	170	고졸	공무원	충북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충청	김환일	1959년생	163	고졸	회사원	김해시
김대중	1974년생	173	대졸	회계사	경기	김재원	1966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	이공희	1972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전	김환일	1959년생	163	고졸	회사원	김해시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졸	회계사	경기	이건우	1971년생	173	대졸	발행업	경기	안민수	1974년생	175	대졸	회사원	대전	소무영	1961년생	175	전문대	회사원	경기도
이동희	1972년생	180	대졸	회계사	경기	박진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행업	경기	고석범	1974년생	162	대졸	회사원	대전	지상훈	1971년생	180	고졸	회사원	서울
강정복	1965년생	170	고졸	회계사	경기	최병익	1974년생	176	고졸	회사원	대전	이진용	195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청	이종필	1974년생	174	고졸	회사원	충북
강지영	1974년생	174	고졸	회계사	경기	김진혁	1964년생	160	고졸	회사원	대전	고석범	1974년생	162	대졸	회사원	대전	남상복	1967년생	175	전문대	회사원	대전
임인갑	1974년생	165	고졸	회계사	경기	정지민	1970년생	162	고졸	회사원	대전	이진용	195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청	최치원	1976년생	165	대학원	연구원	대전
이현철	1972년생	175	고졸	회계사	경기	정일도	1967년생	165	고졸	회계사	대전	안영규	1977년생	168	대졸	회사원	충청	김성진	1979년생	171	고졸	회사원	울산시
김중희	1963년생	163	고졸	회계사	경기	박선준	1974년생	175	대졸	회계사	대전	여인석	1971년생	183	대졸	회사원	충청	백성기	1976년생	167	대학원	회사원	서울
이영일	1965년생	165	고졸	회계사	경기	최병익	1974년생	176	고졸	회사원	대전	여인재	1973년생	176	대졸	회사원	충청						
박종구	1972년생	175	고졸	회계사	경기	김진혁	1964년생	160	고졸	회사원	대전	박종철	1974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청						
최용상	1970년생	172	대졸	회계사	경기	정일도	1967년생	165	고졸	회계사	대전	임재환	1970년생	173	고졸	회사원	충청						
남정대	1971년생	173	고졸	회계사	경기	정일도	1967년생	165	고졸	회계사	대전	최우준	1971년생	167	고졸	회사원	충청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	회계사	경기	진인덕	1965년생	157	대졸	회계사	대전	김정태	1957년생	162	대졸	회사원	충청						
박이수	1960년생	168	중졸	회계사	경기	연태원	1973년생	182	고졸	회사원	대전	성민수	1976년생	168	대졸	회사원	충청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졸	회계사	경기	전홍배	1979년생	170	대졸	회사원	대전	곽대중	1958년생	172	대졸	회사원	충청						
오상택	1970년생	165	고졸	회계사	경기	박정호	1972년생	168	대졸	회사원	대전	정현제	1965년생	174	대졸	회사원	충청						
변희섭	1965년생	174	고졸	회계사	경기	김정호	1972년생	160	고졸	회사원	대전	김호준	1970년생	166	고졸	회사원	충청						
김대환	1973년생	172	대졸	회계사	경기	손준호	1971년생	172	고졸	회사원	대전	이기중	1971년생	175	대졸	회사원	충청						
김정환	1970년생	163	대졸	회계사	경기	김대수	1973년생	170	고졸	회사원	대전	최성욱	1973년생	190	대졸	회사원	충청						
박영학	1967년생	170	고졸	회계사	경기	안상기	1966년생	185	고졸	회사원	대전	조성준	1975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충청						
홍진석	1968년생	167	대졸	회계사	경기	장전석	1976년생	175	고졸	회사원	대전	원병대	1971년생	165	고졸	회사원	충청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계사	경기	김윤구	1979년생	170	대졸	회사원													